

지방 출신 여성의 취업 이동

이현옥(동경대학교대학원, eggrolllove@yahoo.co.kr)

인구 이동은 사회적 산물로서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에 의해 이동 현상은 변화한다. 인구 이동은 개개의 이동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는 현상으로 이동자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되는 영향력 있는 라이프 이벤트(Life event) 발생시 지리적 공간안에서 이동을 행한다. 개인의 인생은 다양한 라이프 이벤트의 축적에 의해 형성되는 라이프 코스라 할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라이프코스(Life course)의 급속한 변화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관련해서 현저히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취업이라는 라이프 이벤트는 지리 공간에서의 이동과 동시에 발생하는데 여성의 취업이라는 이동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여성 노동력의 이동을 이해하는 데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구 분포를 추측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라이프 코스의 변화를 개인 추적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라이프 코스 중 특히 첫 취업이라는 라이프 이벤트 발생시 지방 출신 여성들이 어떠한 이동 패턴을 보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첫 취업시의 여성 인구 이동의 패턴을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 지역 산업 구조의 변화와 관련시켜 고찰한다.

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u한국 노동 패널 조사”v 라는 개인 추적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출생 코호트 별로 연구 대상인 지방 출신 여성을 분류하여 각 코호트의 최종학력, 결혼연령, 취업 연령, 출산연령을 발생 타이밍 순서대로 나열하여 인생 달력(Life Calendar)를 작성, 라이프 코스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 지방 출신 여성의 출생 코호트의 진학과 첫 취업시에 발생한 인구 이동 패턴을 비교 분석하였다.

출생코호트 별로 인생달력을 작성한 결과 1998년 조사 현재 31-40세에 해당하는 1958-67년생 코호트의 지방 출신 여성들을 기준으로 취업과 결혼이라는 라이프 이벤트 발생 순서가 역전하는 라이프 코스가 정착 되어 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코호트에서 부터 결혼 후 직장을 그만 두기 보다는 출산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둔다는 라이프 코스가 일반화 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여성들의 경력 지속 기간이 이전 코호트에 비해 연장 된 것이다.

지방 출신 여성들의 취업 이동을 분석하기에 앞서 개인의 인생에서 취업 이동에 앞서 발생하는 진학이동과 첫 취업지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고등학교 진학시의 이동은 부모와의 동반이동의 가능성이 크므로 제외) 최근 들어 더욱 수도권 출신 대학에 진학을 한 여성의 경우가 수도권에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지방의 대학에 진학한 경우 수도권으로 취업하기가 1980년대 보다 어려워 졌다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방 출신 여성들의 1960년 이후의 첫 취업이동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각 코호트의 평균 학력에는 차이가 있으나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은 큰 변화가 없어 각 코호트의 30%가 지속적으로 이동

했음이 밝혀졌다. 다만 1980년대 즉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 1958-67년생의 광역도시로의 이동이 이전 코호트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음이 주목된다. 이에 비해 1990년 이후 노동 시장에 투입되기 시작한 1968-77년생 코호트는 1958-67년생 코호트에 비해 광역 도시로의 이동이 급격히 감소하여 1990년대 이후 광역도시의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의 실상을 알 수 있었다.

지방 출신여성의 첫 취업시 발생한 이동 패턴의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방 출신의 남성의 경우와 비교해 본 결과 1933-57년 코호트의 경우에만 특별히 남성에 비해 여성 노동력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많아, 1960-70년대의 수도권의 산업구조의 특징과 취업이동이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의 수도권에서 발전하고 있는 IT산업의 발전은 지방 출신 남성들을 여성에 비해 많이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특히 여성의 라이프 코스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고,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실시되었던 제조업 성장정책은 지방 출신 여성들의 취업이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여성의 라이프 코스는 만혼경향과 저출산으로 인해 또다른 전화기를 맞고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의 고용형태는 더욱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여성 노동력의 이동 현상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젊은 세대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